



조경수의 재배기술

(마가목)

북산방화서의 꽃모습



김종열 | 사무국장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창원제일고등학교 조경과 산학겸임교사

이름	마가목
과명	장미과
학명	<i>Sorbus commixta</i>
개화기	5~6월
열매결실	9~10월

마가목은 표고 500~1,200m의 심산수림 속에서 자생하는 낙엽 소교목으로 불타는 듯한 붉은 단풍과 탐스럽게 달린 빨간 열매가 아름다운 조경수이다.

키가 6~8m로 자라며 흉고직경 15~20cm로 이나, 토심이 좋고 비옥한 토양에서는 키가 10m 흉고직경 30cm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빛나는 열매와 진홍빛으로 물드는 단풍이 관광가치가 높은 조경수입니다.

독일에서는 가로수로 많이 활용되며 그 외 유럽 각국에서는 정원수로 많이 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조경적 가치가 인정되어 아파트 단지나 도심의 공원, 도로변에 많이 심고 있으며 열매는 미적 관상가치뿐 아니라 새들을 유인하여 새소리를 듣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1. 나무이야기

마가목이라는 이름은 앞의 새싹이 말의 이빨처럼 힘차게 돌아난다 하여 마아목이라 불리며, 또 줄기로 말채찍을 만들어 때리면 말이 죽는다고 하여 마시목이라 하다가 이것이 변하여 오늘날 마가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각지에서는 이 나무의 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목 열매는 단단하기도 하지만 가을에 줄기마다 가득 달리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래전부터 마가목은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산삼은 풀 중에서 최고의 약재로 친다면 마가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의 약재로 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신경통, 중풍,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생육특성

마가목은 토질은 가리지 않으나 표토가 깊은 비옥한 땅을 좋아하며 건조에도 견디나 지나치게 건조한 땅은 싫어합니다.

생장은 다소 느린 편이고 전정은 싫어하므로 자연

수형으로 기르며 이식은 잘되는 편입니다. 마가목은 회갈색의 수피에 거칠고 잔 점이 있으며 수형은 부정형이며 가지는 다소 굵고 짙은 자줏빛으로 크며 잔가지와 함께 털이 없고 잎은 봄에는 일찍 피고 호생하며 기수의 우상복옆으로 소엽은 9~15장으로 길이 3~7cm, 폭은 2.5cm의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거치가 있고 표면은 녹색으로 윤이 나며 뒷면은 연록색이다. 가을에는 불타듯 빨갱게 단풍이 든다.

꽃은 5~6월경 새 가지 끝에서 복산방화서(複散房花序)로 피며 지름 8~12cm이다. 꽃은 백색으로 잔 꽃이 많이 밀집하여 피므로 꽃이 필 때도 아름답습니다.

열매는 10월에 익으며 5mm 정도의 둥근 이과로서 열매꼭지와 함께 주황색으로 광택이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3. 번식


마가목의 번식은 실생법과 삽목번식으로 하고 있으나 대량 번식 시는 실생번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생번식은 10월경 열매를 채취하여 24시간쯤 물에 담가 두었다가 과육을 제거하여 물을 뺀 후 모래와 섞어 노지에 가매장 하면 겨울의 저온에서 저온층층 처리가 3개월 정도 이루어지므로 3~4월 봄에 파종하면 쉽게 발아합니다. 씨는 건조를 싫어하며 상온에서 저장한 씨는 발아하지 않으며 또한 마가목의 과육에는 발아억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육을 오래도록 그대로 붙여두면 발아력이 저하됩니다.

삽목은 이른 봄 싹트기 전에 지난해 자란 가지를 15cm 길이로 잘라 삽목상에 1/3 정도 묻히게 꽂습니다. 발아력이 좋지 못하므로 발근촉진제를 처리 후 꽃으며 반그늘지게 관리해야 합니다.

4. 전정

전정은 2~3년 차부터 2~3차례 실시하며 4~5년 차부터는 불필요한 도장지만 제거 하여 수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길게 자란 도장지에는 꽃눈이 거의 없으므로 위치에 맞게 전정해줍니다. 전정의 적기는 12월~2월입니다.

5. 병충해 및 방제

병충해는 별로 없는 나무이나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재배하면 흰가루병, 검은점무늬병, 진딧물, 잎말이벌레, 주머니나방 등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며 병해에는 만코지나 지오판수화제를 충해는 아진포수화제 또는 메프수화제로 방제합니다. 



5월초 개화된 모습



잘 익어가는 열매



2년생 묘목